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금호타이어화재피해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오전 광주광산구금호타이어공장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전남대·조선대, 글로벌대학 선정... 최대 1500억 지원 기대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비수도권 대학 집중 육성을 위해 5년간 최대 1500억원을 지원하는 지방대 혁신모델(글로벌대학)에 3수 만에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는 전남대와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 등 호남권 대학 2곳을 비롯해 총 7개 모델·9개 대학을 2025년 글로벌 본지정 대학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Glocal, Global+Local) 대학 30’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육성 정책 중 하나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대학 30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꾀한다. 혁신모델 실행을 위해 규제 특례도 지원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 2023년과 지난해 각각 10개 대학을 선정했다.

2년 연속 나란히 지원 좌절, 사업 마지막 해 선정 전남대, 전 학문 AI교육 혁신으로 전략 산업 육성 조선대·조선간호대연합은 ‘웰에이징’ 고도화 집중

전남대와 조선대는 사업 첫 해부터 매년 지원했으나 두 차례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이번 선정으로 2년 3기 만에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 신규 본지정 7개 모델 9개 대학 명단에 각기 이름을 올렸다.

전남대는 이번 사업 기획에서 AI와 인문학을 연계한 인간 중심 AI 인재 양성, AI-미래모빌리티 특성화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방안 등을 내세웠다.

전남대는 2019년 전국 최초로 AI 단과대학을 설립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혁신을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전 학

문 분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학부, 빅데이터융합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등 첨단학과와 9개 융합전공과 전교생 AI 교양 과정, 인문-테크 융합 교육, 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를 위해 AI 전문 교원 50명 채용과 교수 재교육, 무전공 선발로 학사 유연성 강화, AI 기반 에듀테크와 산학 연계 캡스톤 디자인 확대, AI 윤리·철학·디지털 리더십 필수 교육 등 교육과정도 재설계한다.

글로벌대학 지원금에 RISE 사업비, AI 육성 광주시 재원, 지역산업 연계 투자까지 확보, AI 중심 교육 전환을 위한 안정적

인 재정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총장 직속 ‘AI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미래형 대학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대학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조선간호대와 함께 고령 친화 산업 고도화를 혁신 교육 모델로 제시, 최대 1500억원을 지원받는다.

조선대는 장기간 축적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웰에이징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고령 친화 산업을 AI·빅데이터·바이오·인문학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바이오메디(Bio-Medi), 에이지테크(Age-Tech), 라이프케어(Life-Care) 3대 특성화 단계 대학을 신설한다. 웰에이징 맞춤형 인재 1만명 양성을 목표로 학생 선택권을 강화한 전공자유 선택제(무전공·무학과)와 융합형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2면에 계속) /기동취재부

광주·전남 경찰, 추석 명절 종합 치안대책 추진

현금 취급 업소·전통시장 등 순찰 강화 ‘범죄 예방’ 기차역·터미널 경력 집중, 공항엔 경찰특공대 배치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 재발 방지·보호 조치 강화

최장 열흘에 이르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광주·전남 경찰이 경찰력을 총동원한 대대적인 치안 대책을 추진한다. 긴 연휴 동안 빈 상가나 주택을 노린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귀성·귀경길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와 사고 예방에 나선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추석 명절 종합 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추석 연휴가 범죄 발생과 112신고 등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절도·강도·보이스피싱(사기) 등 서민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

현금을 취급하는 지역 편의점(1253곳)과 금은방(224곳), 금유기관(371곳) 등 1868곳을 비롯해 전통시장과 역·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역 경찰관과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귀성·귀경객이 몰려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보이는 광주송정역과 유스퀘어 일대에는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소통 위주 교통 관리를 추진한다. 공항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는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대테러 대비 태세를 갖춘다.

연휴 기간 집합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범죄 집중 단속도 벌인다. 공장소지 및 공중합박 등 범죄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 확보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한다.

특히 명절 기간 평소보다 관계성 범죄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과 학대아동,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리 대상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전남경찰청도 같은 기간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진단을 실시한다. 주민 불안감이 높은 지역에는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가시적 순찰을 강화한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 우려 가정을 전수 점검하고, 관계성 범죄에 대해 피해자 분리 조치 등 대응을 이어간다. 빈집 절도나 주취폭력, 공중합박 등 범죄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과 연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범죄 발생 시 신속한 검거와 피해 회복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귀성·귀경길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위한 단계적 관리를 실시한다. 다음달 1일까지 배수 등 물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화물차 통행이 증가하는 고속도로와 전통시장 등을 중점 관리한다. /이승원 기자

‘국정자원 화재 여파’... 광주시 홈페이지 일부 민원서비스 중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해 광주시 홈페이지 일부 민원 서비스 접속이 중단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홈페이지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음을 공지해 통해 알렸다. 중단된 서비스는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바로 응답’과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서비스이다.

또 광주시 홈페이지 내 정부24시스템과 공공데이터포털 링크 접속이 차단되고 있으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교통민원24, 세움터,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등은

대체 사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정자원 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 일부가 중단되고 있다”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가동 여부를 전화로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 민원실 등을 직접 방문해도 해당 서비스가 지연 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국가 전산망 일부 기능이 마비됐다. /뉴스시스

철근 가공 및 도소매

이형봉강 · 철근공장 가공 커플러 shop-DWG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동로 134
T 062-716-3488 F 062-716-5888
E sambu6488@naver.com W sambu6488 / 1234

삼부철강(주)